

# 영국 군용기 제전을 보고

190여 기종 참가, 공중 실전도 재연



## 개 관

국제 군용기 제전의 원명은 International Air Tattoo(IAT)이다. 이 행사는 매년 7월에 영국 런던 근교의 RAF Fairford기지에서 1주일동안 열리는데 금년은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하여 민간에게는 7월 22~23 양일간 공개되었다. 그밖의 개최일에는 각국의 군용기 관계 구매자들이 모여 상담을 벌이게 되어 있었다.

또한 이 제전에는 단체와 개인의 비행 실기 전시에 각국의 우수한 조종사들이 모여드는 세계 최대규모의 군용기 전시회로 오래된 퇴역 군용기에서 최신형 미공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종이 지상 전시와 공중

비행 전시가 행해진다.

이번 제전은 때마침 냉전이 종식되어 세계적으로 군사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사실과 유고 내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화유지를 위한 역할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금까지의 군용기 전시회와는 취지가 많이 달라진듯이 보였다. 특히 개최시기가 다되어서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참가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는데다 처음에는 2일간 각1회씩 비행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단 1회밖에 비행하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일들이 있기는 했으나 금년의 전시회는 그런대로 예년보다 많이 참가해 지상전시 194기, 비행전시 175기라는 성황을 이루었다.

## 연 혁

IAT의 연혁은 두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2차대전 당시 영국공군의 전투기 기지였던 RAF North Weald에서 1960년대에 열리던 Royal Air Force Association(RAFA)의 전시회가 시초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금년의 주최측이 말하는 것으로 1920~30년대에 개최해 오던 RAF전시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원류를 찾는 것이라고 하여 두가지 설 가운데 어느 설이 옳다고 판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원류논쟁은 이쯤하고 전시회 자체로 본다면 1973년에 RAF그리남커

면에서 처음 열렸으며 지금의 전시장은 NATO의 전투기기지였는데 1983년에 NATO군이 다른곳으로 옮겨가고 이곳이 전시회 개최장으로 결정되어 1985년부터 이곳에서 열렸다. 그리하여 과거 10년간 IAT는 여러가지를 시도하여 관중을 모으고 세계 각국의 공군당국자와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들게하여 세계적인 항공전시회로 그 명성을 얻게 되었다.

특히 이 전시회는 군용기 제전이 라고 불려 민수용은 일체 출몰되지 않고 오직 군사용만 전시 된다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

## IAT로 가는길

전시회 개최 일시는 늦어도 6개월 전에는 확정 발표되어 세계 각처의 항공관련 출판물에 보도·소개·광고되며 입장권은 예매권, 당일권의 두종류가 있고 예매권은 3개월전부터 신청을 받아 판매한다.

대부분의 관중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관계로 런던을 비롯한 주변 여러 도시에서 회장에 이르는 국도 연변에는 알기 쉽게 표지판이 세워진다. 아무래도 도로가 혼잡해 지는 관계로 되도록이면 이른 아침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의 정체로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전시장의 문은 상오 7시에 열리는데 하루 종일 전시장을 천천히 구경하려면 6시30이나 7시이전에 회장 주변까지 도착해

야한다. 개장전에 도착한 차량을 위해 영국경찰이 특설한 주차장에 유도하여 개장시간까지 기다리게 한다. 또한 돌아가는 길도 역시 혼잡해서 정체가 심함으로 폐장전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폐장후에 한참 더 기다려 차들이 빠져 나간뒤에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열차를 이용할 경우는 Swindon역에서 내리면 회장까지 버스가 운행되며 이 버스는 개장·폐장 시간에 맞추어 첫차와 막차가 떠나게 되어 있다.

한편 항공기를 이용하는 참가자를 위한 전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항공편은 오전 08:30과 09:30, 오후 15:30과 18:30의 두편이 있다. 전세비행기에는 회장에서 산 큰 짐을 실어주지 않음으로 주의해야한다.

교통편의 혼잡과 정체를 피하는 길은 회장 부근의 걸어 다닐수 있는 곳에 숙박하는 것이 상책인데 숙박은 개최기간이 정해지면 며칠안가 곧 예약이 끝나버린다. 민박도, 그래서 일찍 예약해야한다. 테오로드의 읍내에서 회장까지 걸어서 약 40분 걸린다.

그밖에 주최측은 캠프장을 설치하여 천막이나 캠프카로 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보يا주고 있다. 캠프장 사용은 미리 주최측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한다. 또 비행전시를 감상하기 위한 전망대는 65파운드 의 요금을 내야한다. 하루만 보지 않고

2일을 계속 관람하려면 IAT우정권을 사면 좋다. 이 표 한장으로 주전망대도 이용할 수 있고 비공개일에도 입장할수 있다. 이 표는 65파운드이다.

일반을 위한 보통 전망대는 하루 10파운드로 여기서도 비행전시가 잘 보인다. 지상전시를 다 보려면 약 35km 이상을 걸어다녀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복장, 발에 맞는 신발을 준비하는것이 좋다. 회장내에서는 패스트 푸드점이 있어 간이 식사는 가능하지만 격식을 갖춘 식당은 없다. 이 전시장을 2일간 빠짐없이 구경하려면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다.

## 전시장 소개

군용기 제전이 열리는 RAF페어포드기지는 1944년 1월에 개설되어 영국공정군단이 사용하던 곳이다.

2차대전 종전으로 기지는 한때 폐쇄되었으나 냉전과 더불어 유럽으로 진입한 미공군의 주둔을 위해 확장 개설되었다. 주 유럽 미제3공군과 7507 기지 운영단이 이곳에 진주하여 미군기들이 발착하는 주요 기지로 쓰였다.

그후 1964년 다시 영국공군 소관으로 돌아와 각종 비행단을 지원하는 기지 역할을 담당했다.

긴 활주로가 갖추어져 콩고드기의 시험비행이 여기서 실시되었다. 그후 다시 미공군의 지원기지 구실을 하다가 걸프전 당시는 B-52 중폭

격기의 지원기지로 되었으며 U-2R 등 고공 정찰기의 발착에도 쓰인 외에 NATO기들도 쉬어가도록 되어 있는 곳이다.

## 지상 전시

금년에는 190기 이상의 군용기가 지상에 전시되어 이것만 보는데도 꼭 하루가 걸리며 3~5km는 걸어야 한다.

공중 비행전시가 동시에 행해지기 때문에 지상의 전시기를 보면서 날으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배려되어 있다.

전시 배열은 전투기, 탱커, 특수 목적기 등 대개 용도와 급수에 따라 분류되어 진열해 놓아 비교해 보기에 쉬웠다.

거의 모든 항공기는 군용기이며 일단 군용에서 퇴역한 뒤에도 그대로 군용마크를 달고 계속 비행하는 항공기들로 영국군의 하비랜드 DH-104 같은 경우 퇴역후에도 15년간이나 군용마크를 달고 다목적의 일을 하고 있다.

이번에 특히 이색적인 것은 공중 급유에 쓰이는 항공유 운반용 탱커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있다. 대개 이런 보조적 임무의 항공기는 최장한쪽 구석에 다른 기체로 가리워 잘 안보이는 것이 통례인데 이번에는 보잉 707, KC-135등이 호주, 캐나다, 프랑스, 미국등지로 부터 출품되어 있었다. 미국은 KC-135라는 전용 탱

커를 진열하고 있지만 기타는 상업용의 보잉 707을 개조한 것들이었다.

전 폭기 중 NATO의 토네이드는 현재 사용 중인 각국에서 출품하고 있는데 영국으로부터는 토네이드 GR-1 공격기, 적외선촬영장치가 달린 GR-1A 정찰기, 그리고 항공모함용 GR-1B등 3기종이 전시되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이탈리아 공군의 훈련용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은 토네이트 훈련기와 해군용의 MFG-2도 출품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IPS형도 선보인 외에 이탈리아 공군용의 F-3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독일제로는 JG73-F-4와 MIG29를 출품한 외에 펜텀기도 출품되었다. 영국군의 것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며 미국공군이 다음이었으며 유럽 최대의 공군을 보유하는 프랑스로부터는 최신기종의 출품을 볼수 없었다.

영국공군은 토네이드외에 최신의 T-10과 GR-7을 포함한 헤리어기가 참가하고 있으며 BAe사는 여러기의 호크를 내어놓고 있었다.

금년의 주전시장 출품의 기종은 신예기나 신기종의 것은 얼마 안되지만 적어도 20년 뒤에도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켄벨라 폭격기는 현재 영국공군



공중급유용 탱커기. 보잉 707개조형이 보인다

에서도 취역기가 아주 최소한 기종으로 아마 수년후면 이곳에서 볼 수 없게 될것같았다.

## 비행전시

하루 8시간 이상씩 전시 기종의 비행 실기가 공연되었고 1920년대의 낡고 오래된 기종으로 부터 최신의 것까지가 참가하여 그것만으로도 구경거리가 좋았다.

하이라이트라고 할만한 행사를 들면 영국공군이 1920년대에 쓰인 구식 항공기를 꺼내어 마치 영국공군의 구세대를 재현해 놓은것 같은 쇼를 공개했는데 여러대가 하늘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씬도 성공적으로 해 보였으며 약간 연극 같기는 하지만 속력이 느린 구식비행기들의 편대공격 씬은 관중들이 재미를 느끼며 실증나지 않게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었다.

스페인팀은 CASA101을 구사하여 이 구식이고 느린 훈련기로 멋진 비행편을 연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스페인의 훈련기 팀이

소형기종 1등이라면 체코팀은 스호 이 Su-22M-4 5기를 구사하여 공중 곡예에 가까운 숙련된 비행편을 보여주어 전폭기의 하이라이트를 나타냈다. 특히 날으는 탱크라는 별명의 Su-22를 구사하여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또 내려 꽂히는 장면들은 손에 땀을 쥐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한 Mi-244형 헬리콥터를 이용한 전투장면의 연출은 혁명적이라는 평을 얻었다. 보통 헬리콥터는 비행전시 같은 재주를 부리는데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숙련된 조종사에 의하여 멋지게 조종되는 장면은 바로 공상과학소설을 실제로 보는것 같은 느낌을 주었고 회장을 흐르는 음악에 맞춘 비행은 마치 춤을 추는것 같았다.

영국 제일의 항공기 메이커인 BAe사가 벌이는 비행쇼는 한시간에 걸쳐 피로되었는데 토네이드 F-3가 저속의 비행편을 연출하면서 공중 및 지상 공격 장면을 재현했다. 이로써 토네이드기가 제일급의 전투기라는 인상을 주었으나 그 뒤에 미라주 2000, F-16, MIG-29등 다른 전투기의 같은 장면을 보고는 처음에 느

졌던 감격이 덜해지는듯 했다. 토네이드에 이어 현재 유로 파이터 2000의 실전배치가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 리스해 온 자가아 FR-1이 등장하여 같은 편을 연출했는데 누구의 눈에도 역부족임이 역역했으나 담당 조종사는 "MIG-29가 할 수 있는 비행을 나라고 못하겠는가"라고 기염을 토했다.

스위스 팀은 이미 1970년부터 IAT의 단골 참가자인데 금년에는 새 전투기 F-5E를 선보여 첫무대를 연출했다. 우수한 조종사들에 의해 훌륭한 비행을 선보여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

금년의 전시회는 2차대전 종전으로부터 50년이 되는해이며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50년 기념이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종전과 승리를 기념하여 에어쇼에 나온 여러 비행기에는 2차대전 당시 우수한 군용기를 조종한 노조종사를 한사람씩 태워 가지고 퍼레이드를 행하여 장관을 이루었다.

특히 영국공군의 전공을 기념한 퍼레이드에서 왕년의 명전투기 스펫드 파이어와 허리케인을 우측에 그리고 BAe의 하비랜드와 모스키드를 좌측에 배열한 12기 편대의 공중 비행은 관중 가운데 50세 이상

의 중년들에게 2차대전 당시를 추억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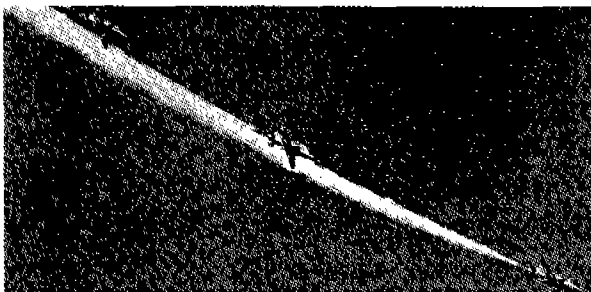
그 뒤에 미국의 사라져 간 중폭격기 보잉 B-17을 중심으로 P-51, P-47, P-38등 역전의 명 전투기 편대가 뒤따르는 편도 연출되었고 그 뒤를 이어 레드 아로즈 2기가 관중의 머리위 푸른 하늘에 비행운으로 멋지게 V자를 그려 승리의 그날을 기념하는듯 날아간 다음 스펫드 파이어 등의 전투기가 다시 날아갔다.

지상공격 편에서는 45도 각도로 내려 꽂히는 편대의 여러 전투기 꼬리에서 흰 비행운이 나타나는 것이 아주 멋있고 장관을 이루었다.

## 평 가

냉전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던 지난 세대에는 이 군용기 제전과 아울러 파리에어쇼,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등과 아울러 군용기의 성능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기념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되었으며 또 항공기 제조 선진국들이 산유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군용기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성능 전시장으로 큰 뜻이 있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긴장이 완화돼 지금은 이 군용기 전시 제전이 마치 항공기의 쇼장과 같은 분위기로 변해가는 일면이 없지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다른 아이디어로 보는 이들을 만족시켜 줄것 같다.



지상공격장면의 연출